

Sermon Notes:

서론: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평가: ‘모두가 죄인’
죄인이기를 거부하는 인간: 사울의 자랑 (빌 3:5)

본론:

1.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한 배경
 - 가.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 이후
눈에서 비늘이 떨어짐: 영적 눈이 뜨임 (행 9:18)
 - 나.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안 이후
해박한 지식: 그러나 율법주의자적 관점에서 해석
바른 성경 해석: 성령님의 도우심, 모든 배경 연구
2. 바울이 말하는 죄
 - 가. 일반적인 죄의 상태 (v.10-12)
모두가 죄인: 의인은 하나도 없음 (전 7:20, 시 14:1)
 - 나. 구체적인 죄 (v.13-17)
언어의 죄 (v.13-14): 목구멍, 혀, 입술, 입->치명적인 독
행동의 죄 (v.15-17): 미움, 시기, 질투, 탐욕->분쟁, 다툼
3. 인간이 죄악에 빠져 파멸의 길로 가는 이유
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 (v.18)
4. 공의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!
 - 가. 심판을 피할 길을 열어 주심
 - 나.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: 십자가

결론: 우리 모두 진정으로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앞장서는 선구자가 되십시오!

암송구절: 로마서 3 장 10-11 절

‘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’

Memo/Reflection:

1.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는가?
2.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가?
3. 죄로 인해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아는가?
4. 예수 그리스도 그 분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구주로 믿겠는가?